

협회소식/업계동정

乳加工協, 92정기총회 개최
분담금 각출 共同弘報실시

한국유가공협회(회장 全應瑨)는 지난 2월25일 협회 회의실에서 92년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했다.

16개회원사중 11개 회원사대표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91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92년도 사업계획 및 4억4천4백만원 규모의 수지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올해 3억 원의 공동홍보 분담금을 각출, 공동 홍보사업을 실시키로 의결했다.

매일유업, 우유등 乳製品
엑스포 공식공급업체 지정

매일유업(대표 朴永鐸)이 최근 大田세계박람회(EXPO) 조직위원회로부터 우유·조제분유·이유식·버터·치즈 등 乳제품 공식공급업체로 지정받았다.

매일유업은 EXPO조직위의 이번 결정으로 자사 제품인 ▲20여종의 우유제품 ▲조제분유 맘마 1, 2, 3 ▲이유식 맘마밀 1, 2, 3, 4 ▲매일 버터 ▲매일 치즈파이 등의 제품에 EXPO회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PO 공식공급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행사장내 권리 품목에 대해 우선 공급권을 갖게 되고 아울러 박람회장내 영업시설도 우선적으로 임대받을 수 있으며 自社 제품 판촉광고에 EXPO의 회장과 마스코트,

로고 등 공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매일유업은 앞서 유산균발효유(요구르트)부문에서 EXPO 공식 공급업체로도 선정된바 있다.

‘삼양식품 30年史’ 發刊

三養식품그룹(회장 全仲潤)은 지난 1961년 창업부터 현재까지 삼양식품그룹의 역사를 조명한 ‘삼양식

품 30年史’를 최근 발간했다.

삼양식품은 창업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경영실적과 발전상을 기록으로 남겨 재도약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88년 社史 발간계획을 수립한 뒤 89년 11월부터 본격적 집필에 들어가 1년여만에 책을 냈다.

국내판 크기에 7백80페이지 분량의 ‘삼양식품 30年史’에는 창업배경과 그 필연성, 창업과 성장의 시대, 사세확장과 성숙의 시대, 수정과 재도약의 모색, 경영자료 분석 등이 5년단위의 편년체로 기술돼 있다.



두산식품 ‘요그린딸기’ 시판

斗山종합식품(대표 安基榮)은 딸기과즙을 첨가해 상큼한 맛을 내게 한 새로운 타입의 요구르트인 ‘요그린 딸기’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斗山종합식품이 지난해 10월부터 출시한 ‘요그린 사과’, ‘요그린 파인애플’ 시리즈의 하나로 판매되는 ‘요그린 딸기’는 설탕 대신 과당과

올리고당을 사용한 것이다. 특징이다.

‘요그린 딸기’는 또 어린이의 빙울육에 도움을 주는 칼슘함량을 높였으며 무지고형분(우유에서 지존만을 제거한 단백질, 유당, 무기염류, 비타민 등을 통칭하는 말)도 기존 요구르트의 3%보다 2%포인트 높은 5%를 함유하고 있다.

용량과 권장 가격은 기존의 ‘요그린 사과’, ‘요그린 파인애플’과

같은 65㎖ 1백50원이다.

해태, 에미社와 기술제휴 드링크 요구르트 '에미' 개발

해태유업·주(대표 閔丙憲)는 최근 스위스 에미社와 기술제휴로 새로운 드링크요구르트 '에미'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에미 드링크 요구르트는 방부제와 인공감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비피더스 유산균을 크게 강화, 영양이 풍부해 남녀노소 누구나 간식용 또는 다이어트용으로 적합하다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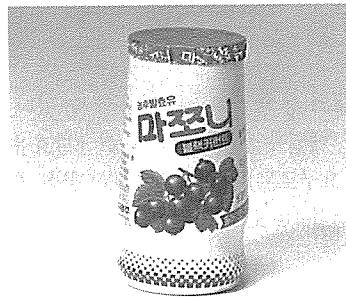
'에미' 드링크요구르트는 딸기와 포도 등 2종류가 시판되고 있는데 딸기 제품에는 6.5%, 포도에는 4.5%의 천연과즙이 각각 함유돼 있다.

소비자가격은 1백㎖ 3백원.

드링크 발효유 '마조니' 한국야쿠르트, 개발시판

한국야쿠르트유업·주(대표 李銀鮮)는 최근 드링크타입의 발효유 '마조니'를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마조니는 국내 최초로 중국 흑룡강성에서 자생하는 블랙커런트의

생즙을 첨가, 기능성을 보강한것이 특징.



또한 비피더스균의 활성물질인 올리고당을 첨가하여 균의 생장활동을 촉진시키고, 식이섬유를 첨가, 저칼로리 고영양다이어트식의 기능을 보강했다. 소비자가격은 1백10g 1개에 3백 50원.

롯데우유사장 趙東來씨



롯데그룹은 1월27일 경영쇄신과 기업분위기 일신을 위해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따라 롯데햄·롯데우유 사장에는 趙東來 호텔롯데사장(사진) 이 선임됐으며 姜晉佑롯데우유사장은

롯데쇼핑사장으로 전보됐다.

趙東來 롯데우유사장은 지난 76년 롯데제과 상무이사로 롯데그룹과 인연을 맺은후 현롯데우유의 전신인 롯데축산 대표이사를 거쳐 81년 롯데호텔 대표로 자리를 옮긴지 만11년만에 다시 롯데우유로 복귀했다.

한·덴 유가공 사무소이전

한·덴마크유가공·주(대표 전화진)는 최근 서울사무소를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환빌딩 5층으로 이전했다. 전화 588-7711.

매일乳業 전무이사에 李圭泰씨



매일 유업(주)는 3월26일 오전 11시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무이사에 李圭泰씨, 이사에 李漢東씨를 선임했다.

또한 부장 楊光植씨를 이사대우로 승진 발령했다.

한편 한국뉴질랜드치즈(주)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공동대표이사사장에 金福鏞씨, 공동대표이사 부사장에 B.T.WILLIS씨, 이사에 P.R.JENSEN, P.V.LOUGH, 이한동, 이기원씨를 선임하였다.

종합소식

폐기물 집단회수제 도입 종이팩 1백kg 35원 매입

초중고교 및 군부대 종교계 소비

자모임등 각급 사회단체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일정량이상 모아 놓으면 정부가 이를 사들여 다시 자원화하는 '폐기물 집단회수제도'가 도입된다.

환경처는 최근 종이팩, 알루미늄

캔등 집단회수대상 폐기물 9종과 종류별 매입단가(별표참조)를 확정, 4월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환경처 산하 한국자원재생공사는 각급 학교나 단체들이 수집한 물량이 1t을 초과할 경우 순회출장해 매입,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살충제 및 부탄 가스용기 등은 재활용업체에 매각하고 전지류는 환경관리공단 산하 화성사업소에 보관토록 했다.

환경처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알루미늄캔 및 유리병을 제외하고 회수되지 않고 있는 품목들의 회수율이 50~1백%까지 증가, 연간 30만t의 재활용 폐기물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고 특히 전지류의 경우 전량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돼 전지류로 인한 환경오염이 격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처는 특히 1만1천7백여t의 국내생산을 포함, 연간소비량이 1만7천3백여t에 이르고 있는 전전지의 경우 재생처리시설이 부족하고 재생기술이 낙후돼 수거가 극히 저조

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식품기술전’ 개최 4월13일 종합전시장서

‘92서울국제식품기술전이 대한 무역진흥공사(사장 金喆壽)주최로 오는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종합전시장(KOEX)본관 3층에서 열린다.

올해로 10번째를 맞는 ‘서울국제식품기술전’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식품제조설비를 한 곳에 모아 전시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시설현대화를 촉진하고 국산 식품 및 식품가공기 기의 대외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열려오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상공부,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이 후원하며 식품첨가물, 주류, 음료, 식품가공기기, 식품포장기자재, 주방 및 요식용기기, 기타 식품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이 일반에 소개된다.

품목별 수집관리요령 및 매입단가

품 목	매입단가 (kg당)	관 리 요 령	최 소 수집단위
종 이 팩	35원	• 내용물을 비운뒤 물로 닦아 말림 • 건조후 펴 적당크기로 묶음	1백kg
알루미늄 캔	2백50원	• 알루미늄과 철제캔으로 구분해 상자등에 포장	1백kg
철 제 캔	50원	• 알루미늄캔은 압축포장	
유 리 병	25원	• 마개를 제거한 뒤 백색 청색 갈색등 세가지로 구분	2백kg
살충제 용기	2백원	• 사용한뒤 구멍뚫어 보관	
부탄가스용기	85원	• 농약병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	1백kg
수 은 전 지	2만원	• 수은전지는 MR로 표시돼 있음	2kg
산화은 전지	4만원	• 산화은전지는 SR로 표시돼 있음	2kg
기 타 전 지	1백원	• 수은 산화은전지와 구분보관	1백kg

다음은 이번 전시회에 전시할 수 있는 세부품목의 종류이다.

▲식품, 식품첨가물=과일류, 소채류, 낙농품, 어패류, 갑각류, 냉동건조식품, 가공식품, 통조림, 병조림, 향신료, 조미료, 식용유, 과자류

▲주류, 음료=와인, 맥주, 위스키, 브랜디, 코냑, 보드카, 청주, 소주, 기타제제주, 청량음료, 건강음료.

▲식품가공기기=제분기계, 산업용 제과, 제빵, 비스킷제조기계, 유업용 가공기계, 빙과제조기계, 식육가공기기, 제당기계, 초콜릿 및 당과 제조기계, 양조·증류, 맥아발효기기, 유량·식용유지 가공기기, 파스타제조 및 제면기기, 보존처리 및 제관기기, 차 및 커피가공기기, 어육가공플랜트, 과일 및 채소 가공기기, 표백살균기기, 분쇄·혼합기기, 원심분리기, 분액기, 여과기기, 균질기, 농축기, 프레스압출기, 냉동·냉장기계, 제빙플랜트, 펌프컴프레셔, 열교환기, 벨브배관, 세척 및 건조기기, 냉동건조기기, 배분 및 계량기기, 검사, 통제계기, 탱크 및 사일로류.

▲식품포장기계=자동포장기계, 자동결속기, 진공포장기계, 충진기, 봉합기, 라벨부착기, 랩핑기, 포장용로봇 등 포장기계 및 자재.

▲주요 요식용기기=식기세척, 건조기, 오븐 및 튀김기기, 커피분쇄 및 커피처리기계, 미서 액화기 및 주스기기, 식육카빙, 슬라이싱, 민싱기계, 얼음제조기, 냉동 캐비닛, 계중 및 계량기, 연수기, 환기장치, 냉동, 냉장 쇼케이스, 정수기, 취사기구류, 주방위생기기 및 기타 주방용품.

▲기타 식품관련 정보서비스=자동판매기기시스템, 시스템키친 및 H.A기기, 오더엔트리시스템, 보충발주

시스템, 상품서비스, 출판분야(식품, 용기, 출판, 컨설팅)

극빈학생 우유급식비 25만명 73억전액보조

농림수산부는 올해 학교우유급식 사업비로 73억원을 확보하고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등 극빈학생 25만명의 우유급식비 전액을 보조키로 했다.

최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일반 급식아동 5백75만명에게는 백색시유(2백㎖ 기준) 1백46원, 분유(22g 기준)는 90원에 급식토록 할 방침이다.

급식기간을 2백일로 하고 급식대상학교의 선정은 각시도지사가 해당 교육감과 협의해 선정토록 했으며 대상학생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했다.

7대회장 康誠元씨 선출 낙농육우협회 정기총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92년도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제7대 회장에 전서울 우유협동조합장 康誠元씨(64, 성원목장경영)를 선임했다.

〈康신임 회장 약력〉

- 28년 서울 產 ·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68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65년 서울신문사 전무이사
- 66년 공화당 사무차장
- 71년 제8대 국회의원
- 83년 서울우유조합장

농림수산 정보센터 개소 자료전산화로 鄭—農연결

농림수산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하여 알려는 재단법인 농림수산정보센터(이사장 權東燮)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3-8 문창빌딩에서 曹京植농림수산부장관을 비롯한 각계인사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본격업

무에 들어갔다.

농협, 축협, 농경연동 관련기관이 출연한이 센터는 제1단계로 농어민과 도시소비자를 연결하는 월간 종합교양지와 월2회 최신 농림수산 해외정보지를 발간하고 2단계로 농어촌지역단위의 각종정보를 전산화하여 농어촌마을과 도시소비자, 행정기관 및 관련업계와 연결할 계획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牛乳”誌는 유가공관련 종사자에게는 情報源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유가공 종합정보지입니다.

牛乳誌는 열린 잡지이며 독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의 내용이나 길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유 및 유제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더 없이 좋겠지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낼곳 :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31-1
한국유가공협회 牛乳편집실